이름: 김현욱, 학번: 21800201 분반: 02

사랑의 하나님, 구약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 지에 초점을 맞춰서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들었던 가장 큰 생각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요즘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같은 가 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그 뜻을 따르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율법을 중요시했지만 오늘 날 성경 말씀을 읽고 신앙 생활을 하는 저희의 모습을 비교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 할머니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정말 충격적으로 목격한 문화가 있습니다. 도저히 저의 관점으로써 이해가 가지 않는 장례 문화 때문에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만 보고 기도드리고 뛰쳐나왔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를 읽은 것과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겪은 느낌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 문화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나 생각과 물건이 없어지더라도 흔들려서는 안되고, 비록 내가 속한 단체에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여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가 지키고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레위기에 나온 모든 것대로 지금 제가 행동하고 따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죄 앞에서 엄격하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레위기의 내용은 형식적인 법전을 읽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읽게 된 레위기의 말씀은 제가 어디에 속하든 그 무리에 동조하지 않으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정도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이지 않을 까라는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수업 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친구와 같이 있을 때는 그 친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비록 내가 이 세상에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많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며 구분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저의 신앙 세계관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제가 읽었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해주는 의미있는 말에 집중해서 마음에 울림이 있는 말씀을 골라서 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레위기, 민수기는 제사를 드리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군사 병력 및 그 여정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 배울 것이 없고 역사적 사실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읽을 때는 그냥 역사적 사실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저 자신의 모습을 같이 비교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하셨고, 광야에 있는 내내 백성들을 이끌어주지만 백성들은 계속 불평을 놓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자신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얼른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모습을 몇 장 몇 장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크리스천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희는 언젠가 한 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며 그 여정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인생 속 메마름이 강해지고 그에 대한 충족을 위해 불평 불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점은 그런 저희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이끌어주시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간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인 민수기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저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알아가길 원하고 계신다는 점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 갈급함을 못 느끼고 있었지만 오늘 처음으로 말씀 속에서 저의 삶을 드러내 보고 또 성찰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저 찬양하고 웅장한 음악 속에서 제게 울리는 무언가에만 집중했던 저의 과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도 사랑하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의지적 구원을 허락하셨음에 다시 한 번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율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큰 주제로 애굽에서 인도하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읽다가 정말 오랜만에 십계명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조금 강력한 어조로 주장을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또 그렇게 때문에 신명기의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해를 주지 않으며 항상 좋은 것만을 주는 모습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은 엄격하고, 공의로우심의 측면이 더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또 그를 행하였을 때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를 더욱 사랑하시기에 그런 법률과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머리 속에 남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네 하나님 여호화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을 감히 인간인 저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맹세하신 언약 또한 잊지 않은신다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끝까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에서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은 그 크심을 헤아릴 수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위해 남겨놓으신 사랑의 장이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들었습니다.